

청소년, '통일 필요하지 않다' 40%!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국내 언론은 앞다투어 연일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안보/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은 가장 가깝지만, 분단 이후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하다.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발표한 '통일 여론동향'과 '2023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과 다음 세대,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통일 인식을 살펴본다.

주요 조사 결과로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성인 25%, 청소년 40%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보다 '통일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목회자의 경우 69%가 통일 가능성 있다고 응답해 개신교인(47%)과 비개신교인(37%)보다 훨씬 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있음을 보여줬다.

다양한 국제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통일 여론의 흐름과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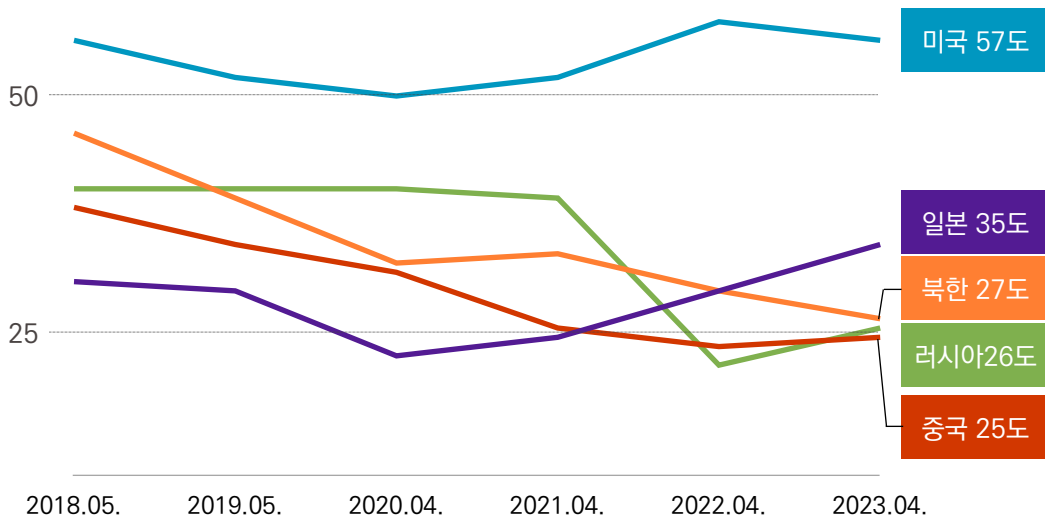


01

[한반도 주변국 인식] 주변국 호감도, 북·중·러 100점 만점에 20점대 중반

- ▶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 주변 5개국 각각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호감도를 감정도(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로 평가한 결과, 미국 호감도가 57도로 가장 높았고, 2위가 일본(35도), 그다음으로 북한(27도), 러시아(26도), 중국(25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 일본의 호감도는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반일 감정의 여파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다시 회복 추세이며, 러시아의 호감도는 우크라이나 침공(2022) 이후 대폭 하락했다. 북한과 중국의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그림] 한반도 주변 5개국 호감도 (감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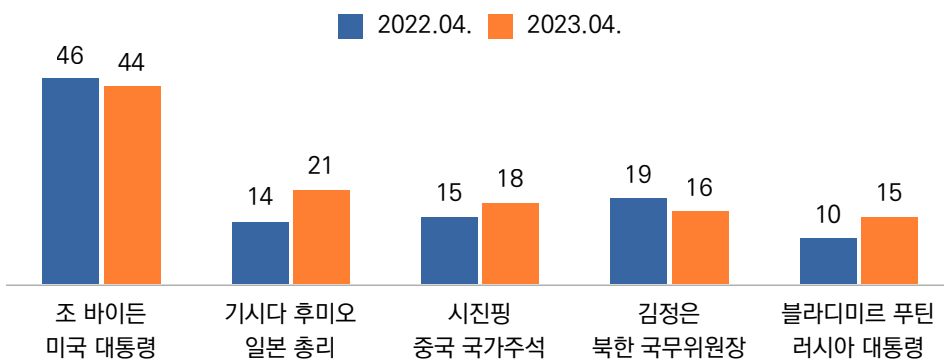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주변국 호감도, 2023.04.1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4.07.~04.10.)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기. (온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

◎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가 가장 낮아!

- ▶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역시 감정도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미국 대통령 호감도(44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일본(21도), 중국(18도) 순으로 나타났다.
- ▶ 지도자 호감도는 조사 대상 국가 모두 국가 호감도보다 낮았으며, 최근 북러 정상회담으로 공조를 피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 호감도는 각각 16도, 15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감정도**, 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2023.05.09.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4.21.~04.24.)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기. (온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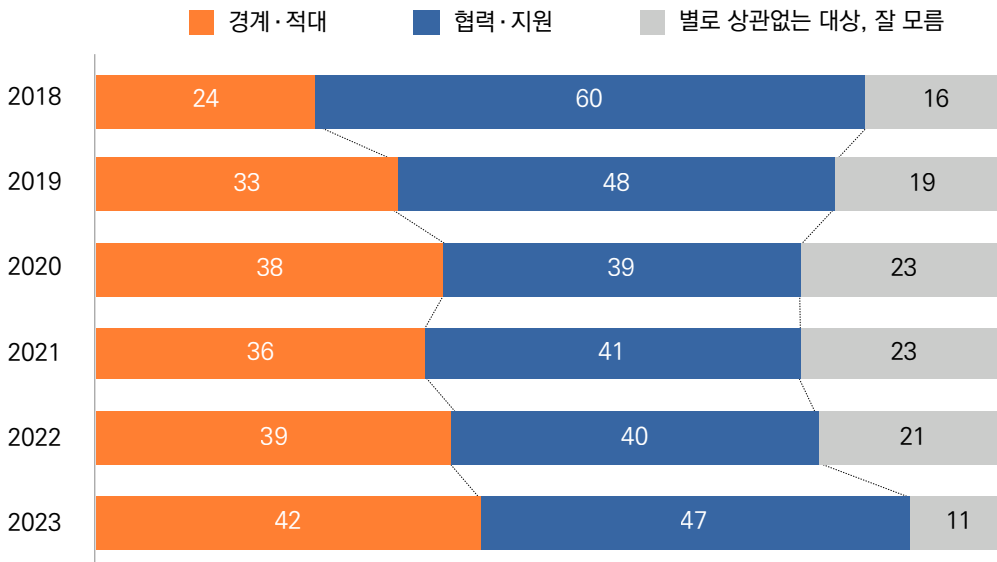
02

[북한 인식]

북한을 '경계·적대'로 인식하는 비율, 점점 증가!

- ▶ 우리 국민은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할까? 2023년에는 '협력·지원'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47%로,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42%)보다 많았다.
- ▶ 하지만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북한 인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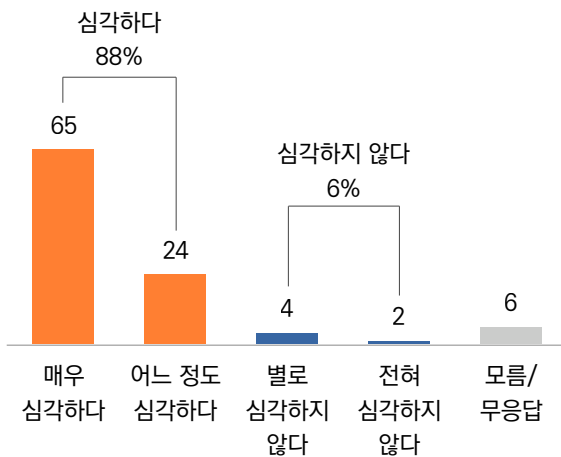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동향, 2023.07.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설문조사, 2023.06.09.~06.11.)

◎ 국민 대다수, 북한 인권 심각하다고 생각!

- ▶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 대다수인 88%가 '심각하다'(매우+어느 정도)고 평가했고,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65%나 응답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북한 인권 심각성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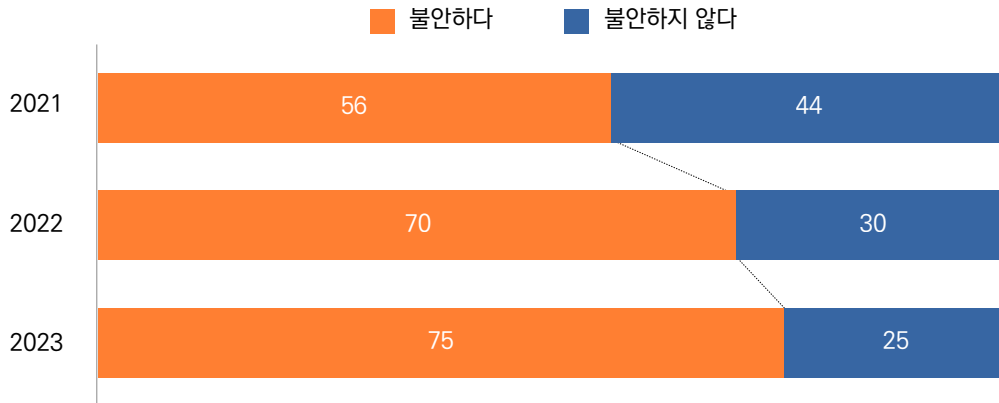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동향, 2023.07.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설문조사, 2023.06.09.~06.11.)

◎ 우리 국민 4명 중 3명, 현재 안보 상황 불안하다!

- ▶ 현재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75%) '불안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특히 '불안하다'는 의견은 2021년 56%에서 2023년 75%로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주목된다.

[그림] 현재 안보 상황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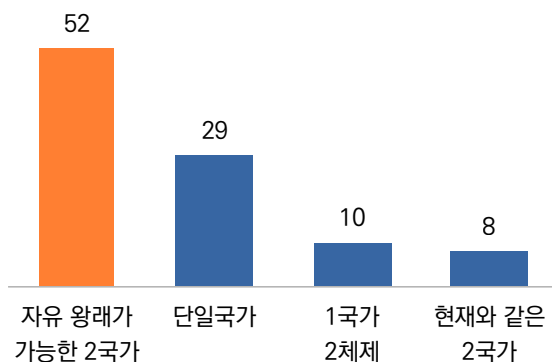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2023 국민 통일인식 조사, 2023.08.15.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675명, KBS국민패널 이용한 인터넷조사, 2023.08.01.~08.03.)
 **4점 척도로 '매우+어느 정도 불안하다', '별로+전혀 불안하지 않다' 비율임

03

[일반국민 통일 인식] 남북한, '자유 왕래가 가능한 2국가'가 가장 현실적!

- ▶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절반 이상(52%)이 '자유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러한 국가가 부담 없고,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된) 단일국가' 29%, '1국가 2체제' 10% 등의 순이었다. '단일국가'보다는 '자유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꼽은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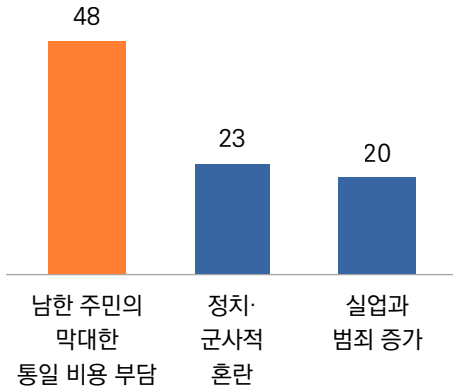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동향, 2023.07.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설문조사, 2023.06.09.~06.11.)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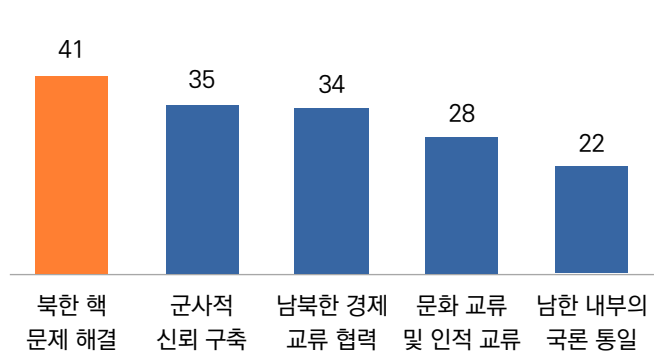
◎ 통일로 가는 걸림돌, '통일 비용 부담'과 '핵 문제'!

- ▶ 통일 과정의 가장 큰 우려 사항, 즉 걸림돌은 무엇일까?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이 48%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정치·군사적 혼란' 23%, '실업과 범죄 증가' 20% 등의 순이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91%)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과 치안/안보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 ▶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복수 응답)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41%)이 1위로 응답됐고, 이어 '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 등의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통일 비용 부담'과 '핵 문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과제인 셈이다.

[그림] 통일 과정 우려 사항 (상위 3위. %)



[그림]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 (복수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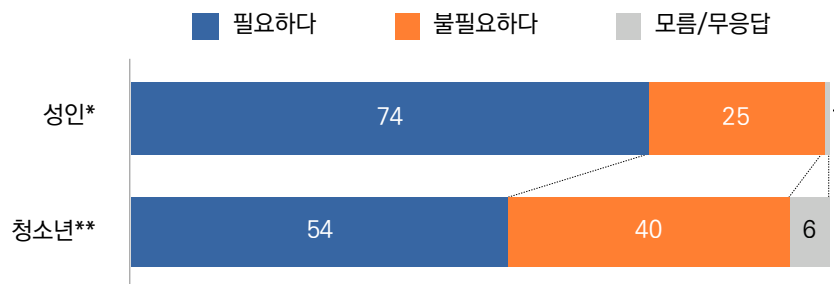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2023 국민 통일인식 조사, 2023.08.15.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675명, KBS국민패널 이용한 인터넷조사, 2023.08.01.~08.03.)

04

[청소년 통일 인식] 청소년, '통일 필요하지 않다' 40%!

- ▶ 이번에는 청소년의 통일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청소년의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성인과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인 74%, 청소년 54%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청소년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통일의 필요성 인식 비교*** (성인 vs 청소년, %)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동향, 2023.07.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설문조사, 2023.06.09.~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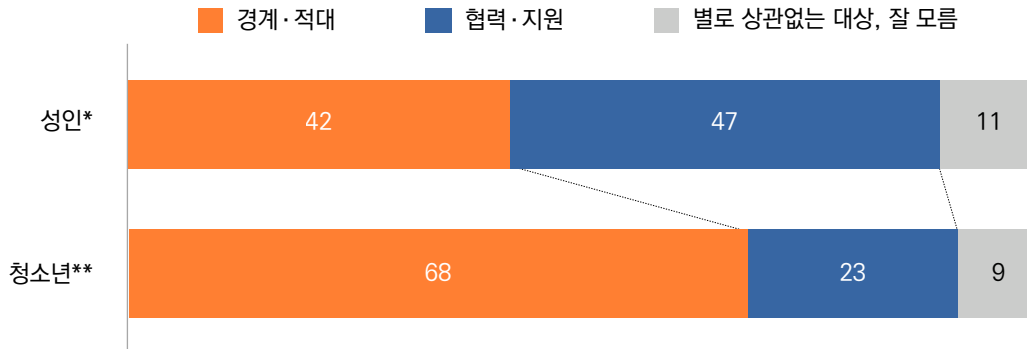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소년 통일인식조사, 2023.07.25. (만 13~18세 온라인 패널 1,000명, 온라인조사, 2023.07.03.~07.09.)

***4점 척도로 '매우+어느 정도' 필요, '별로+전혀' 필요하지 않다 비율

◎ 청소년, 성인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 높아!

- ▶ 청소년과 성인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인의 경우 북한을 '경계·적대'(42%)으로 보는 시각이 '협력·지원'(47%)보다 5%p 정도 낮은 정도였으나, 청소년은 '경계·적대'가 68%로 '협력·지원'(23%)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북한에 대한 대상 인식 비교*** (성인 vs 청소년, %)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동향, 2023.07.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설문조사, 2023.06.09.~06.11.)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소년 통일인식조사, 2023.07.25. (만 13~18세 온라인 패널 1,000명, 온라인조사, 2023.07.03.~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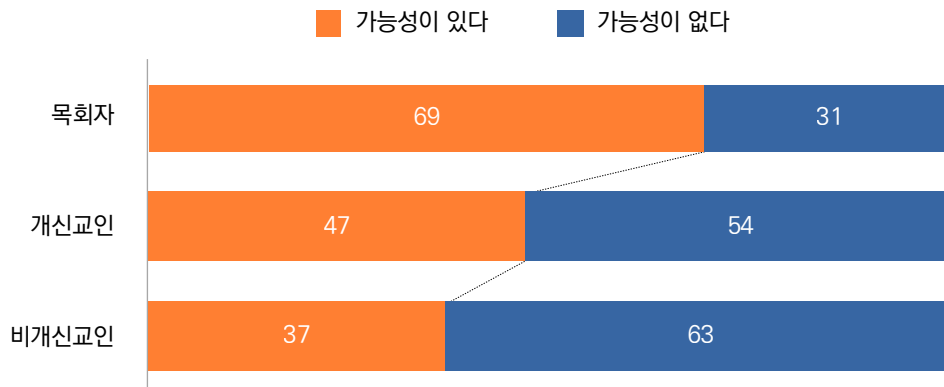
05

[개신교인의 통일 의식]

통일에 대한 목회자의 염원,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 ▶ 통일에 대한 목회자, 개신교인 그리고 비개신교인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에 따르면 통일 가능성에 대해 비개신교인은 10명 중 4명 정도(37%)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신교인은 이보다 높은 절반(47%)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 ▶ 반면 목회자는 무려 69%가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통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통일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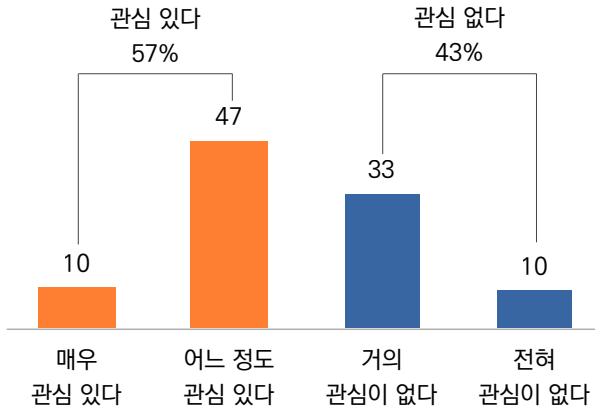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P.628.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개신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2.12.)

◎ 교회의 통일 및 북한 관심도, 10%만 매우 관심 있어!

- ▶ 교회 출석자들에게 출석 교회가 통일 및 북한 사역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묻은 결과, 절반 이상 응답자(57%)가 출석교회의 관심 있음을 표명했는데, 그 중 '매우 관심 있다'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 ▶ '매우 관심있다'는 비율이 10%에 그친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느낄 때 한국교회가 통일/북한 사역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출석교회의 통일 및 북한 사역 관심도 (교회 출석자,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P.38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남북 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왔다. 현재 남북 관계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데다가 동북아 국제 질서의 진영화가 심화하면서 남북 관계는 위기 상황으로 돌입했다. 그렇다면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훈풍이 불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통일 의식의 첫 번째 특징은, '더 멀어지고 있는 통일'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42%의 국민이 '경계·적대'의 대상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8년 24%에서 무려 18%p가 증가한 수치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최선의 남북한 국가 형태는 '1개의 국가'가 아니라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2개의 국가', 즉 아주 낮은 단계의 통일 의식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더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통일 인식'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성인 국민의 인식은 '경계·적대'(42%)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협력·지원'(47%)의 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북한 인식은 '경계·적대'가 무려 68%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서도 성인은 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청소년은 54%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그 단절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란 두 번째 세대를 지나, 그들의 자녀인 세 번째 세대는 북한에 대한 민족적인 정서가 없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과 필요가 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의 이런 통일 의식은 통일의 시기가 장기화될수록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특징은, '아직 살아있는 통일에 대한 개신교인의 소망'이다. 통일 가능성에 대해 개신교인의 절반(47%)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비개신교인의 응답(37%)보다 10%p 높은 수치이다. 개신교 내에서도 목회자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가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성도들보다 통일에 대해 더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그리고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몇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이후에 호국불교로 자리 잡았는데 이러한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정책에 협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종교의 국가 지향적 성향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게 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는 1945년 남북 분단 이후에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목회자와 교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한국교회는 남한보다 북한에서 번성했는데, 해방 이후에 북한의 탄압에 못 이겨 남한으로 내려온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북한은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고 회복해야 할 교회였다. 이들에게 통일은 본능과 같았고 최고의 선교적 사명이었다. 이북 출신 목회자와 교인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남한 교회에까지 확산되어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을 선교지로 생각하는 영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넘버즈」 206호에서 다룬 바 있지만 한국교회는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가 2,548만 명이나 되고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한국교회는 교세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좋은 기회가 된다. 북한은 무궁무진한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선교 대상지로 고려할 때 정복 주의적 선교를 한다면 교회는 북한에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다. 19세기, 식민지에 서양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간 교회가 결국에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역사적 경험을 반추한다면 북한을 선교지로 본다면 북한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즉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세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북한을 타자화하지 않고 이웃으로 삼아 이들과 소통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